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3 아이슈 무쿠암 행

▶한줄 요약
지안 금어의 제자가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그 소문 속의 인물이 이석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 기자 일행은 어렵게 교통편을 구해 스리나가르로 향한다.



“지안 금어 아들이 스리나가르에 있다?”

1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리나가르로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돌아앉으니 송 서화가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송 서화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스리나가르로 출발하자고 했다.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우회해서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보면….

짐을 꾸리고 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왔다.

-벌써 떠나시게요?

-이석원도 그렇고 먼저 그곳으로라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지안 금어의 제자를 스리나가르에서 보았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닌데 신문사 출입하는 어떤 이가 그가 아닐까 하더군요.

-어디서 보았다고 하던가요?

-스리나가르 거리에서라는데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더랍니다. 아는 체라도 하려고 했는데 금방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혼자라고 하던가요?

미순이라는 공양주의 딸을 생각하며 물었다.

-혼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럼 미순이란 여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쨌든 그가 지금 스리나가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말은 맞다. 그를 찾을 수 없고 보면 성물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우리도 떠나지요?

내가 송 서화가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정말 출발하시게?

오오스마 기자가 내게 물었다.

-네.

-하긴 버스가 없으면 돈을 모아 합승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알아보았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려고요.

-저도 가겠습니다.

오오스마 기자는 자신이 함께 있어야 길 안내가 될 것이라며 신문사에서도 허락받았다고 했다. 바라던 바였다. 사실 성물이 있다는 정확한 위치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는 그곳을 취재한 적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잘됐다 싶었다. 뒤늦게 심 작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 더 묵을 줄 알았는데 자신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숙소의 방세를 계산했다. 뉴델리 생활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잠시 잠깐 만끽했던 자유로움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꼭 순결을 열망하던 자가 작부의 방을 나설 때의 심정이 이러할까 싶었다.

-사원의 그 엄격하고 절제된 규칙 생활에서 그나마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원이라니요?

송 서화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절 말입니다.

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스님?

그가 말뜻을 알아듣고 하하하고 웃었다.

-머리 기른 스님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한때요. 한 몇 년 스님 생활했었지요. 본시 스님 묵기가 아니었는지…. 지금도 절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은사 말입니다. 그곳에서 방을 하나 내주더군요. 벌써 한 십 년 되어 갑니다.

-그랬군요.

-절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놔서 말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그렇게 생긴 거 같아요. 가장 신성해야 할 자리를 한 번씩은 박차고 싶으니 말입니다. 신심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지만, 이곳 문물을 그런 식으로나마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을 얻을 때 좀 더 깨끗하고 넓은 방으로 가자고 했는데 굳이 그럴 것 뭐 있느냐던 그가 생각났다.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겠습니다.

-그 양반들이야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경건함만 묻어나는 분위기에 짓눌리다가 자고 싶으면 자고 거리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잠시나마 타국에서 그러다 보니 옥죄었던 신심이 많이 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묵해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릭샤는 무리고 택시를 대절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이용하기로 했다. 우회하여 버스로 스리나가르 근처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리나가르 턱밑에서 택시로 갈 수 있을 것이었다.

델리 중앙역 부근으로 나갔다. 우리가 묵었던 뉴델리 뒷골목보다 중앙역 부근은 더 지저분해 보인다. 신발 고쳐 주는 사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70년대 우리의 시골장에 가면 신발을 땜질해 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우리에게도 저런 세월이 있었지. 아니 80년대까지도 구두를 수선해 신던 우리가 아닌가.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이빨을 뽑아주는 사람, 길거리 이발사, 옷을 수선하는 사람, 우산 고쳐 주는 사람…. 더러운 옷을 걸친 사람도 있고 깡마른 병자도 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늙은이들….

오오스마 기자는 교통편을 찾느라 마침 곁에 없었는데 송 서화가가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낮게 뇌까렸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님들은 의처증 환자들인지 모릅니다.

-네?



엉뚱한 말에 내가 화들짝 쳐다보자 그가 웃었다.

-의심병 말입니다. 의심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견성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웃었다.

-하하하 그렇군요.

-어떤 스님이 선을 통해 화두를 붙들어 의문을 풀었어요. 스승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치고 보니 뭐 도가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도거든요. 그래 하산을 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몇 년 여편네와 살다 보니 도력이 바닥나 여편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할 때의 의심병이 도진 거지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아내 뒤를 따랐는데 도중에 남정네와 시시덕거리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나 여편네를 끌고 와 죽이고 말았어요.

-저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편네와 시시덕거리는 남정네는 여편네의 남동생이더랍니다. 수도를 하는 사이 처남이 많이 변했던 겁니다. 오해한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저승으로 가니 염라대왕이 묻더랍니다. ‘이놈 왜 아내를 죽였느냐?’ ‘오햅니다.’ ‘오해? 내가 네놈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염라대왕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 그는 또 출가해 중질을 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해만큼 더러운 것이 없더랍니다.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꼭 맛을 봐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요. 먹어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정확히 그 맛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제야 부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거리로 나갔지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제도하다 보니 사람들 자체가 불성이더랍니다. 즉 부처더라는 말이지요. 부처가 그들 안에서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이 잠시 대승심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다시 염라대왕에게 갔지요. 염라대왕이 물었어요. ‘오해를 풀었는가?’ 그러자 그가 염라대왕의 목을 칼로 치면서 말했어요. ‘오해는 그대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가 말을 끝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이곳으로 와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모두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누가 구해 주나? 그렇게 물어보면 결국 나밖에 없더라는 말이지요. 불법이 무서운 것은 저들을 개념 없이 도울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석원이 말입니다. 왜 스승을 아니 아버지를 죽였느냐고 하니까 미물에게 진리의 풍광을 가르친 죄라고 했다지요? 그 말을 밤새워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들이 스스로 부처가 자신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구할 보살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석원이란 그 사람, 제대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 말에 송 서화가의 입가에 웃음이 물렸다.

-본인은 부정한다고 하지만 그가 정말 난타의 환생자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송 서화가를 쳐다보았다. 어쩌다 고문서를 감정하는 직업을 가졌을까 했는데 스님 생활을 했다고 하니….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과묵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했는데 예사로 볼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같이 지내면서도 별 정이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깨침에 대한 이해력이 정확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인지 몰랐다. 차편을 알아보겠다고 간 오오스마 기자의 모습이 보였다.

-다람살라까지 갈 차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갈아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스리나가르에 갈 수만 있다면 가야지요.

2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차는 어느 야산 기슭을 달리고 있다.

-다람살라에 티베트의 법왕이라고 하는 달라이라마가 있다고 하던데요?

송 서화가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가 건너오면서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티베트와 가장 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가 세워지면서 서방 세계에 티베트의 현실이 알려지게도 되었고 티베트의 불교가 더 널리 알려지게도 되었지요.

-좀 더 가깝게 가는 길도 있다고 하던데…?

송 서화가가 물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좋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꾀를 부리다 보면 낭패당하기는 십상이거든요. 다람살라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행객이 아주 많습니다. 도중에 차가 고장 나도 다른 차로 재빨리 편승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곳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통일성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이 틀리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립니다.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보면 엉뚱한 곳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가보지 않을 길이 많다는 증거이지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저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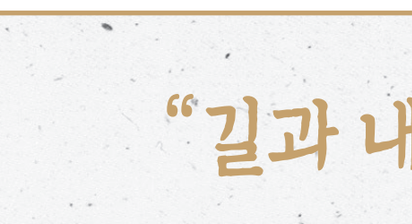
송 서화가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 또한 그제야 다람살라로 코스를 잡은 오오스마 기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차는 쉴 사이 없이 달렸다. 멀리 계곡에 피어 있는 들꽃들, 녹색의 숲, 뜨거운 한낮을 식히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호수가 보이고 잠시 후 빛기둥이 섰다. 인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호수들. 달 호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인도인들은 달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햇볕이 따갑다.〈계속〉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New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